

현충사 십경도

- 열가지 그림으로 배우는 이순신의 성품과 일생

이내원 (이순신 교육 운동가)

2017 년 11 월

1. 이순신의 어린시절



이순신은 조선의 인종 1 년인 1545 년 3 월 8 일(음력 4 월 28 일) 덕수 이씨 집안의 아버지 이정과 어머니 초계 변씨 사이의 네 아들 중에서 셋째로 태어 나셨습니다.

태어 나신 곳은 그 때의 땅 이름으로는 한성부 건천동(마른내골)이며 오늘날의 지명으로는 서울시 중구 인현동입니다. '마른내'라는 별난 동네 이름이 말해주듯이 이순신이 태어난 동네 가운데에는 개울터가 있었는데 장마같은 큰 비나 내려야 물이 흘러 시냇물이 되고 보통 때는 물이 말라

붙어 모래 바닥을 드러내기 때문에 개구장이 이순신의 놀이터로 안성맞춤이었던 듯 합니다.

이순신의 조카 이분은 작은 아버지 이순신의 어릴때 모습을 「어렸을 때 장난하고 노는 것이 늘 여러 아이들과 진(battle formation)을 치고 싸움하는 모습이었으며 모든 아이들이

이순신을 꼭 대장으로 삼았다」고 썼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이순신은 어릴때부터 병정놀이를 즐겨하며 자라서 장군이 될 기질(temperament)을 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순신 장군은 글을 아주 잘 쓰셔서 <난중일기>와 '한산섬 달 밝은 밤에...' 같은 훌륭한 시조도 여러 편 지어내실만큼 학식을 갖춘 장수이셨는데 그 당시의 장군들이 대부분 글을 잘 못하는 것과 아주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이분은 「처음에 큰 형과 작은 형, 두 형들을 따라 글을 배웠는데 글 재주가 있어 크게 성공할 것 같았으나 늘 글공부는 그만두고 싶어 했다」고 써서 공부하는 재주도 또한 갖추고 있었음을 말해 줍니다.

이곳에서 이순신이 나이 열살쯤 되었을 때 안동에서 이사 온 공부를 아주 잘하는 유성룡이라는 세 살 위의 친구를 만나 서당에도 같이 다니며 깊이 사귀었던 것 같습니다. 자라서는 서로 믿고 위해 주며 임진왜란에서 힘을 합해 나라를 구해 냈으니 얼마나 훌륭한 친구사이(friendship) 입니까?

2. 청년시절 첫번째 무과시험 중 말에서 떨어지다.

이순신은 열세살 쯤 되었을 때 외가가 있는 충청도 아산 백암리(배암골)로 이사 와서 어린시절을 이곳에서 보내고 스물한살 (21 세)이 되었을 때 이웃 동네에 살던 방진이라는 활을 아주 잘 쏘는 무장 (Army general)의 외동딸과 결혼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음 해 스물두살(22 세) 때 부터 군대 연습을 하여 스물여덟살(28 세) 때 처음으로 군인 장교가 되는 무과시험을 보았지만 말을 타고 달리는 실기 시험 중 말에서 떨어져 왼편 다리가



부러져 불합격(fail) 되었습니다.

이 때 이순신은 남의 도움없이 홀로 부러진 다리를 끌고 일어서 옆에 서 있는 버드나무가지(willow tree branch)를 꺾어 그 가지로 부러진 다리를 동여 매어 보는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와같이 이순신은 젊었을 때 부터 어려운 일을 남의 도움없이 혼자서 해결하는 정신을 길렀던 것입니다.

3. 함경도에서 오랑캐를 무찌르는 모습



이순신은 서른두살(32 세) 때 두번째로 무과시험(military exam)에 합격하고 장교(officer)가 되어 조선의 맨 북쪽 함경도와 만주(Manchuria) 사이의 국경(border)을 이루는 두만강 하구(bay)에 있는 조산보라고 하는 군대농장의 둔전관(farming supervisor)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농사가 잘 되면 가을에 추수(harvesting)를 할 때가 되면 만주의 오랑캐들(Barbarian)이 쳐 들어와 곡식을 빼앗아 가기 때문에 그들을 무찌르는(crush 하는) 모습입니다.

4. 거북선을 만드는 모습

이순신 장군의 나이 마흔일곱(47 세) 일때 전라도 여수 지역을 지키는 전라좌수사(Naval Commander)가 되자마자 미리 전쟁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세상에서 처음으로 거북선이라는 신기한 방탄전함(anti bullet war ship)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은
도편수(carpenter)에게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의
설계도(draft)를 설명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일년 뒤에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이순신 장군은 새로 만든 거북선을 앞세워 일본군을 보기 좋게 무찔러 버리고 거북선의 효과를 선조 임금님에게 다음과 같이 보고했습니다.



「제가 일찍이 왜적의 난리(Japanese invasion)가 있을 것을 걱정하여 특별히 거북선을 만들었는데 앞에는 용머리(dragon head)를 붙여 입으로 대포를 쏘고 등에는 쇠뿔(spike)를 꽂았으며 안에서는 밖을 내다볼 수 있고 적선(enemy ships) 수백척 속에라도 뚫고 들어가 대포를 쏘게 하였습니다.」

거북선은 두께 10~13cm(4~5 inches)의 굳은 나무판자로 만들었지만 임진왜란 때 일본이 자랑하던 조총이 뚫지를 못하여 적진속을 안심하고 마음대로 다닐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순신 장군이 오래전에 연구하여 만든 거북선을 425년이 지난 2016년 4월 6일에 미국 해군연구소(USNI News)가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든 7개의 전함(war ship) 중 하나로 뽑았으니 이순신 장군이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고 연구하는 훌륭한 장군인지 알 수 있습니다.

5. 부산포 해전도



7 월 8 일의 한산도 해전에서 완패를 당한 일본군은 다시는 이순신의 수군과 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 죽었지만 일본에 있는 최고 우두머리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순신 수군과는 싸우지 말라고 해전 중지 명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한산도 해전까지 불과 3 개월 사이에 9 번의 해전을 모두 지고 그 힘들게 만들어 낸 약 2 백 척의 배가 조선 수군의 화포에 모두 부서져 버렸으니 싸워서 이기지도 못할 바엔

만들어 대 주기도 바쁜 배라도 아껴야 하겠다는 생각이었던 듯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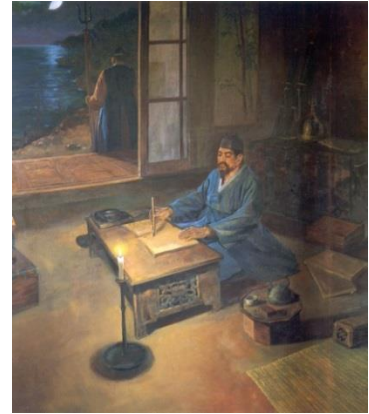
이렇게 되자 싸움을 더하지 못하시는 이순신 장군이 답답해 지셨습니다. 그러자 이순신 장군도 작전을 바꾸어 '너희가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너희 안방에라도 쳐들어 간다'하는 듯이 일본 수군의 본거지(stronghold)인 부산포를 원정 공격한 것이 부산포 해전입니다.

부산포 포구에 정박해 놓은 일본 전함들을 줄지어 드나들면서 포격하여 최대 전과인 적선 100 여 척을 격파하는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이순신 장군이 가장 아끼던 용장 정운 장군이 이 해전에서 전사하셨습니다.

6. 이순신 장군의 한산도 생활 모습

이와 같이 일본 수군이 싸우려 하지 않아 마음이 급해진 이순신 장군은 3 년 8 개월 동안 한산도에서 우울한 세월(depressed days)을 보내시면서 그 마음을 글과 시조(writing and poetry)로 써 내시었습니다.

‘한산섬 달 밝은 밤에 수루에 홀로 앉아 큰 칼 매만지며 깊은 시름하는 차에...’라고 하는 이순신 장군의 시조는 이렇게 탄생한 것입니다.



7. 어머님께 효도하는 이순신

이순신 장군의 부모에 대한 효도는 아무리 어려운 사정이 있어도 막히지 않았습니다. 이순신이 함경도의 건원보라는 국경 초소의 권관이라는 계급이 낮은 장교로 오랑캐를 토벌(attack)할 때 충청도 아산에 계신 아버지가 73 세로 돌아 가셨습니다.



그러나 아산으로부터 건원보까지는 길이 멀고 험하여 56 일 뒤에야 이순신에게 전해졌습니다. 소식을 들은 이순신은 상관의 허락을 받은 후 그 날로 고향 아산으로 떠나 자식된 도리를 다했습니다.

이 그림은 이순신 장군이 다행히 틈을 내시어 여수 고읍천에 오셔서 어머님께 효도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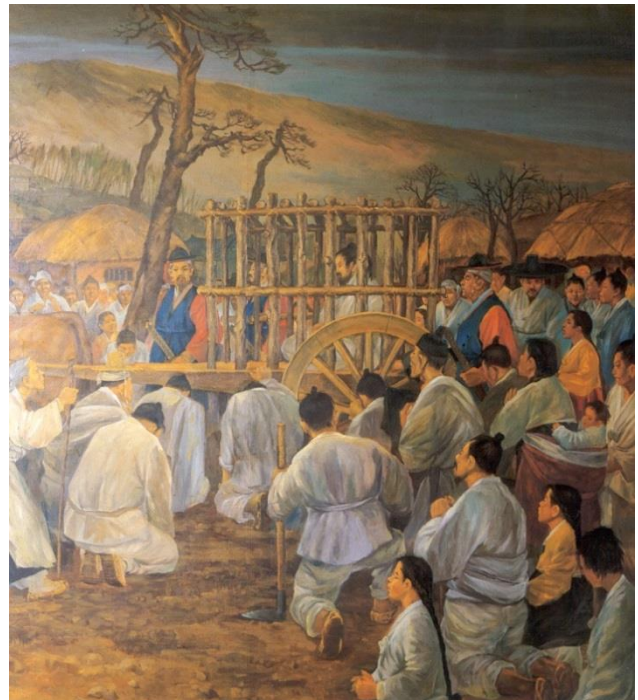
이순신 장군이 전라좌수사 (Naval Commander)가 되어 전라남도 여수에서 근무하게 되자 홀로 된 어머님도 여수 고읍천으로 모셔 왔습니다. 그러나 이순신 장군이 삼도수군통제사가 되시어 경상도의 한산도에 머무신 3 년 8 개월 동안의 일기에는 여수에 계시는 어머님 소식을 며칠만 듣지 못하셔도 안절부절 하시는 모습이 자주 보입니다. 늘 어머님을 생각하면서 옆에 모시고 잘 해 드리지 못하는 것을 마음 아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일기에서 어머님을 이룰 때 보통사람과 같이 '어머니'로 표시하지 않고 천지(天只)라는 아주 특이한 호칭(부르는 이름)으로 표시하셨습니다. 중국에서 유래한 이 '천지'의 말 뜻은 '어머님은 하늘과 같으시다'라는 뜻이라 하니 이순신 장군의 효심이 얼마나 높은가를 알 수 있습니다.

8. 잡혀 가는 이순신 장군

이순신 장군은 5 년 동안 잘 싸워 한번도 지지 않고 모두 이겨 일본 수군이 남해 바다에 얼씬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간첩 요시라에게 속아 넘어간 선조 임금은 이순신 장군을 오해하여 통제사 직에서 파면하고 서울 한양으로 잡아 가는 기막힌 장면입니다.

잡혀 가는 이순신 장군에게 땅에 엎드려 절하며 존경을 표시하며 슬퍼하는 백성들의 모습에서 이순신 장군이 얼마나 백성을 끔찍히 사랑하던 훌륭한



장군이었던가 알게 됩니다. 이 잘못된 일로 인하여 조선 수군이 일본 수군에게 전멸을 당하여 다시 나라가 위태롭게 되었으니 올바른 처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합니다.

9. 기적같은 명량해전의 승리



이순신 장군대신 새로운 통제사가 된 원균은 160 척의 판옥선단이 약 세배 많은 500 여 척의 일본 함대에 전멸당하여 조선 수군은 없어진 것과 같았습니다. 다급해진 선조 임금은 이순신 장군을 다시 통제사로 임명하고 이순신 장군은 겨우 끌어 모은 13 척의 판옥선으로 그 열 배가 넘는 133 척의 일본 수군을 명량의 좁은 물목으로 끌어 들여 죽을 힘을 다해 싸워 일본배 31 척을 부숴버리자 일본 수군은 당하지 못하고 후퇴했습니다.

여기서 배울 점은 훌륭한 지도자의 필요성입니다. 원균은 세 배 많은 적에게 져서 전멸을 당했는데 이순신 장군은 열 배가 되는 적을 만나서도 깨뜨려 물리쳤으니 좋은 리더십을 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가를 알게 됩니다.

이 명량 해전의 승리로 이순신 장군은 조선 수군을 재건하고 다음 해 노량에서 일본군과 마지막 해전을 벌일 수 있게 됩니다.

10. 마지막 해전 노량해전과 이순신 장군의 전사

명량해전 다음 해인 1598 년 8 월 8 일에 일본의 총 두목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러자 조선에 나와 있던 일본 장수들은 빨리 일본으로 돌아가려고 서둘렀습니다. 그러나 단호한 이순신 장군은 죄없는 우리 백성(국민)을 죽이고 괴롭힌 일본놈은 한 놈도 살려보내지 않겠다는 각오로 노량의 물길을 막았습니다.



그러자 길을 뚫고 필사적으로 도망 가려는 일본 수군과 놓치지 않으려는 조선 수군은

가까운 거리에서 뒤엉켜 싸우는 모양이 되었고 이순신 장군을 알아 본 일본군이 조총을 쏘아 이순신 장군은 왼편 가슴에 총알을 맞고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숨을 거두시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나라를 사랑하셔서 군사들이 기죽지 않고 끝까지 용감하게 싸우도록 죽어가는 자기 모습을 방패로 가려 못 보게 하라고 지시하셨으니 그 위대한 애국심은 죽음도 말리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이 때의 조선 수군과 명나라 연합 함대는 300 척의 일본 함대 중 250 척을 부셔서 일본군은 겨우 남은 50 척만 이끌고 줄행랑을 쳤으니 남의 나라를 괴롭힌 죄를 톡톡히 받은 셈입니다.